EU, 환경마크 33개 품목 추가!

쓰레기봉투 · 샴푸와 비누 등 범위 다양 … 관련 수출기업 주목

EU가 현재 부과중인 19개 품목군에 이어 새로 36개 품목군을 환경마크 부여 대상품목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내 관련기업의 관심이 요망된다.

1992년 출범한 EU 환경마크인 에코라벨은 현재까지 섬유 및 의류, PC, 노트북, TV 등 19개 품목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 · 부여되고 있다.

브뤼셀 무역관에 따르면, 진공청소기, 가구, 관광집기 등 3개 품목에 대해 기준 제정작업이 실제 진행중에 있으며 나아가 지금까지 기준이 제정된 품목군 수보다 훨씬 많은 무려 33개 품목군에 대해 기준 제정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품목수가 대폭 확대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특히 33개 품목군에는 소형 가정용 전기기기, 절연기 등의 여러 전기제품과 패션 액세서리, 장갑 등 국내 수출 관심 품목들이 상당히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기준 제정 여하에 따라 국내 수출에도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이미 에코라벨 기준이 제정돼 있는 품목들도 라벨 부착 품목수를 궁극적으로 매년 25% 이상씩 증가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EU 시장에서 에코라벨 부착품목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에코라벨은 초기에는 주방용지나 세척제 등 소비자들의 실생활에 직접 사용되는 유럽 경쟁우위 품목이 대상이 돼왔으나 2000년부터는 섬유 및 의류, 신발, TV, PC, 노트북 등 점차 역외국가 tdotks제품도 경쟁이 가능한 품목들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EU는 12월1일과 2일 EU 에코라벨 도입 10주년을 맞아 소비자들에게 에코라벨을 부착한 기업과 제품에 대한 정보를 더 직접 제공하기 위해 에코라벨에 대한 새로운 온라인 사이트(www.eco-label.com)도 출범시켰다.

에코라벨 부착제품에 대한 홍보는 물론이고 이를 판매하는 상점을 소개하는 한편, 기존 온라인 쇼핑 사이트와도 연결돼 있어 소비자들의 에코라벨 부착상품 구매를 보다 직접적으로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에코라벨은 120개 이상의 관련기업에 대해 부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EU는 2001-2002년 에코라벨 부착상품의 판매액이 300% 이상 늘었다.

이미 기준이 제정돼 있는 대상품목은 위생용 화장지와 클리너, 배드메트리스, 복사지, 식기세척기용 세제, 식기세척기, 신발, 식기세척제, 바닥깔개, 실내용 염료와 안료, 세탁제, 전구, PC, 휴대용 컴퓨터, 냉동고, 토양개선제, TV, 섬유제품, 화장지, 세탁기, 세제원료 등이다.

반면, 앞으로 제정 가능성이 있는 검토품목은 인쇄용지, 인쇄물, 문구류, 벽지, 쓰레기봉투, 쇼핑백, 필기도구, 전화, 복사기, 소형 가정용 전기기기, 패션액세서리, 장갑, 가죽제품, 스포츠장비, 완구 및 게임, 포장지, DIY제품, 에어컨티션류, 난방기기, 물 끓이는 시스템, 절연기, 건축부분품, 건축서비스, 소매서비스, 건조기, 금융서비스, 운송서비스, 배달서비스, 자동차 수리서비스, 자동차, 부엌용품, 위생용품(냅킨 등), 샴푸와 비누 등 33개 품목군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3/01/03>